

나는 경쟁력 있는 존재인가?

유 럽발(發) 재정 위기로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용 전망이 매우 어두워지고 있다. 한 취업 포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의 고용실사지수는 겨우 79.0에 그쳤다. 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갈수록 고용이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기업들의 채용이 위축되면 취업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직을 생각하는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경쟁력부터 점검한 뒤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업적과 성과를 정리하는 습관

굴지의 대기업에서 10여 년을 근무하고도 경력기술서를 단 몇 줄로 끝내는 직장인이 제법 있다. 구체적인 직무와 성과 등을 추가하라고 요구해도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는 답변이 돌아오곤 한다. 구직이든 이직이든 본인의 경력을 일목요연하게 문서로 제시하는 것은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다.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동안의 업무와 성과를 단기간에 기술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몇 년 또는 10년, 20년도 더 된 성과를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기억해 내기란 천재라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자랑스럽게 내



최효진

- HR코리아 대표이사
- PAYOPEN 대표이사
- SK그룹 회장실 비서실장 역임
- SK Telecom 해외사업 본부장 및 글로벌 사업추진실장 역임
- 저서 : <다이나믹 시커> <삶을 움직이는 힘 - 코칭 핵심70>
<그들은 어떻게 회사가 원하는 인재가 되었을까> 등 다수

세울 만한 성과가 있어도 자칫하면 '희미한 영웅담'에 그치기 십상이다.

이런 연유에서 본인의 경력으로 특별히 내세울 수 있는 프로젝트나 성과 등을 매년 이력서에 추가로 정리해 두는 습관은 커리어 경쟁력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의 경력과 능력을 이력서라는 문서로조차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없다면 당신은 가장 기본적인 소통에서 실패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지속성의 경쟁력

한국 사회에서는 경력을 따질 때 지속성을 높게 치는 경향이 유난히 강하다. 헤드헌팅사를 이끌고 있는 필자도 이직을 고려하는 직장인이 찾아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조언부터 한다. 지속성이야말로 경력 관리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이직이 승진과 연봉 상승 및 경력 계발을 한꺼번에 움켜쥘 절호의 기회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잦은 이직이 경력 관리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는 너무나 많다. HR코리아에 채용을 의뢰하는 기업 중 상당수는 지원자의 이직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직이 잦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실성이나 문제 해결능력, 인간관계 등에 대해 부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직무의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어느 조직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2~3년, 길게는 5년 이상이 걸린다. 높은 연봉 등 당장의 이익을 좇아 이직하는 것은 평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직을 희망한다면 현직에서 아무리 짧아도 3년 이상, 일반적으로 4~5년은 경과한 뒤가 좋다.

희소성의 경쟁력

채용시장만큼 수요-공급의 법칙이 잘 들어맞는 곳도 없을 게다. 특정 분야의 인재가 많으면 연봉이 낮아지고 인재가 적으면 기업들이 서로 모여 오려고 경쟁하므로 연봉이 올라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남들과 비슷한 경쟁력으로 같은 분야에서 경쟁하기보다 같은 능력으로도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역발상이야

말로 크나큰 경쟁력이다.

예컨대 외국어가 매력적인 경쟁력으로 꼽히는 분야는 해외 사업 개발이나 해외 마케팅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쪽이다. 해외 분야라면 외국어는 누구나 갖추고 있어야 하는 필수 자질이다. 그러나 외국어에 능통한 엔지니어는 그리 많지 않고 해외 분야라면 희소성은 더 높아진다. 그만큼 경쟁우위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개발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언어의 강점이 채워 주고도 남는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다. 아이폰이 2009년 말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자 진작부터 아이폰 플랫폼 분야의 개발에 박차를 가한 이들이 있다. 시대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이 남보다 앞선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다른 직업을 가진 채 취미로 개발하는 경우였으나 아이폰 출시와 함께 많은 정보기술(IT)업체가 아이폰 플랫폼 기반 개발자 스카웃 경쟁에 뛰어들자 몸값이 폭등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흥미와 연구가 남다른 경쟁력의 원천이 된 경우다. 나의 경쟁력이 희소성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한 뒤 남들과 차별화하려는 노력은 또 다른 경쟁력이다.

먼저 연락하는 습관

위에 설명한 내용을 직접 챙기기 힘들다면 누군가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 헤드헌터도 좋고 인사 전문가나 업계 관계자, 학교 선배도 괜찮다. 본인의 인맥을 총동원해야 하며 전화든 메일이든 먼저 연락하는 습관이 무엇보다도 요긴하다. 누군가는 이력서를 수정해 주고 향후 진로에 대해 상담해 줄 것이고, 누군가는 좋은 채용 정보를 제공하며, 누구는 미래의 경향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먼저 점검하고 연락하는 행동 자체가 '준비된' 경쟁력의 원천이다.

당장 이직할 뜻이 없어도 경쟁력 있는 경력을 갖추는 것은 평생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외부 채용 시장뿐만 아니라 현재 몸담고 있는 조직에도 나와 비슷한 역량을 가진 경쟁자는 수도룩하다. 내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속한 업계와 조직에서 꼭 필요하고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려는 마음가짐이 바람직하다. 